



'한국 속 독일을 맛보다' 남해 독일마을맥주축제 내 달 30일 개막

송고시간 | 2022-08-16 14:29

| 9월 30일~10월 2일...유럽형 문화공연 및 전시



남해 독일마을 맥주축제 자료 사진
[남해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남해=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남해군과 남해관광문화재단은 '제10회 독일마을 맥주축제'를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2일까지 남해군 독일마을에서 연다고 16일 밝혔다.

재단은 유럽형 문화공연 및 전시, 맥주 경연대회, 옥토버나이트 등 기본프로그램은 물론 유럽 문화를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독일맥주는 물론 소시지를 포함한 독일 향토 음식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즐거움도 함께한다.

재단은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행복한 민간주도형 축제'를 만들기 위해 주민 위주로 구성된 '남해 맥주축제 추진단'을 구성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유럽형 글로벌 축제를 위해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행사는 '옥토버 페스트'의 전통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기획하고 있으며, 독일마을 거리를 따라 진행되는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오크통 개봉과 활기찬 견배제의가 이어질 계획이다.

또한 이번 축제는 맥주잔, 안주 그릇, 수저 젓가락 등 일회용품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필(必) 환경시대에 부합하는 '쓰레기 없는 축제'를 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실천 축제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남해 독일마을 맥주축제'는 외부 방문자가 90%를 차지하며 해마다 1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체류형 축제'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형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shchi@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8/16 14:29 송고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Yonhapnews. All rights reserved.